

재림준비의 비밀

작성일 : 2010. 6. 16 (수) 새벽 4:00

작성자 : 정명심 목사 (대구스타교회)

[사람들이 ‘재림 준비’라고 하면 해보기도 전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본인이 많은 적든 간에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최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준비가 어렵지 만은 않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재림에 대해 막막해 하면서 더운 날씨 속에 생명 찾아 노방을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것이 재림 준비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깨달음이 맞는지 주님께 여쭙었을 때 말씀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재림 준비가 어렵지만은 않은 거네요.”)

그래. 잘 깨달았다.

재림준비가 무엇이냐?

나를 신랑으로 맞아

신부의 사랑을 하며

영원히 나와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신부의 핵심인 사랑으로 나를 맞아야

그 재림의 날 휴거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랑 잃으면 핵심 잃어 나를 맞이할 수 없다.

그러니 너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곧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여 밥 먹는 것.

나를 사랑하여 생명 돌보는 것.

나를 사랑하기로 전도하는 것.

나를 너무 사랑하기로 너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행실.

나를 사랑하여 운동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를 사랑하여 너에게 주어진 일,

즉 사명을 다하는 것이 바로 재림준비이다.

너의 모든 일에

나 예수를 사랑하기로 행하여지는 모든 것이

바로 너의 1차 휴거를 이루는 일이다.

바로 나를 사랑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1차 휴거된 영체이다.

재림준비 하라하여 어려웠느냐?

힘들었느냐?

아니다.

쉽다.

결코 어렵지 않다.

나 예수는 할 수 없는 일을,

정녕 이룰 수 없는 일을,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의 주 예수고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체이며
천지를 창조한 내 아버지의 근본 창조목적도 사랑인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만든 나의 나라에 결코 올 수 없느니라.
내 사랑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여
하나뿐인 목숨을 던졌다.
사랑하기로 끝까지 너를 도울 각오 없이 그리 하였겠느냐.
그러하니 너는 힘을 내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그것이 재림준비다.
그것이 휴거의 비밀이다.

(“휴거의 비밀은 사랑이고, 휴거의 근본은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에 대하여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회개해야지 사랑이 생기지.
회개하지 않는 사랑을 100%의 온전한 사랑이 아니지.
철이 섞인 금이 어찌 순금일 수 있느냐?
순도 100%의 정금으로 만들어야
최고 값어치 나가는 금이 아니더냐.
그러니 회개하여 온전한 상태에서 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휴거 받을 수 있는 사랑이다.
나도 내 아버지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랑이다.
네 마음을 비워 진정한 사랑하여라.
절대 비워라! 비워라!
나 예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온전케 하라.
호리라도 남김없이 나를 맞아라.
회개는 나를 최단시간 맞을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다.
전심으로 기도하면 맞을 수 있다.
회개하여 깨끗하게 맞자.

너의 마음에 늘 나를 맞이하길 바라며 나 예수가

